

해외거점 기반 조선 경쟁력 제고… 국내 생태계 약화 우려도

K-조선, 글로벌 진출 확대

인도·동남아·중동 등 생산거점 마련
인건비 절감·납기 대응력 확보 기대
“국내 건조능력 일정 이상 유지해야”

국내 조선업체들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해 인도·동남아·중동 등으로 생산 거점을 넓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과 납기 대응력 확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선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업체들은 고임금 구조와 인력난, 납기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등 현지 조선소와 협력을 확대, 생산 공정을 분산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인도 현지 조선소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 최대 규모 드라이도크를 갖춘 스완 조선소와 전날 양



HD현대는 지난 7월 인도 남부 코친조선소와 MOU를 맺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 인력 양성 등 전방위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인도 코친조선소 전경. /HD현대

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신조선박 설계와 구매, 생산관리(EPM), 해양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HD현대 역시 지난 7월 인도 남부 코친조선소와 MOU를 맺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 인력 양성 등 전방위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달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과 동시에 싱가포르에 투자

법인을 설립, 지역 내 투자 관리와 설비 운영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남미에서는 페루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을 현지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수함 공동 개발에도 나섰다. 중동에서도 사우디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화오션도 지난 7월 인도 노이다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열고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 해양플랜트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페트로브라스의FPSO 입찰에 참여하며 현지화 요건 충족을 위해 거점 확보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양설비 전문업체 다이나맥 인수를 통해 해양플랜트 제작 역량을 강화했다.

이 같은 해외 진출 강화 흐름은 단순한 진출을 넘어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과 맞물려 있다. 2025년 상반기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52%, 한국은 2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품질과 기술 투자에서 성과를 내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 발주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소들은 납기 대응력과 수주 기반 유지를 위해 해외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장기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범용 선박의 해외 외주가 늘면 국내 기자재·부품 산업이 위축되고, 인도 등 신흥국이 자국 기자재 산업을 키우면 국내 업체의 수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진출이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내 기자재 업체의 입지가 줄고 숙련 인력 양성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건조 기반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 연간 건조 능력 1100만 CGT는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신기술 개발과 시험을 이어가고, 해외 현장에는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균형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ADB, 韓 경제성장 전망치 유지

(0.8%)

“美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발목”

李 정부 확장재정 정책, 내수 기여 전망
中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하방 요인 지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다. ADB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1.9%, 내년 1.9%로 두 해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다만 ADB는 통상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체 입법 등 주요범죄 처벌 공백 최소화”

》1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서 계속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권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 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

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연세 기자 kys@

한 화 손 해 보 험 에 캐 롯 이 더 해 집 니 다

여성의 삶을 케어하는 한화손해보험이

빠르고 혁신적인 캐롯을 만나

일상 속에 더 가까운 웰니스를 만들어 갑니다.

시작에 힘을 더하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전속모델 고윤정